

기업 · 청년 일자리 공모 선정

익산시, 국·도비 17억원 확보 · 14개 사업 추진... 151명 청년 지원

익산시가 청년들의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에서 14개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약 17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여건에 맞게 시가 직접 일자리 설계부터 지원까지 참

여해 더욱 의미가 크다.

사업 선정에 따라 시는 내년에 창업 기업에 시제품 개발비 1천5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청년 디어리움 창업성장플러스 지원사업과 △청년 알부자 일자리 지원 △청년식용임자리 지원 △패션산업 전문인력 양성 △다이어움 청년기업 일자리 지원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해 151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의 고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현상이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익산에 정착하고 미래를 준비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아동정책 직접 제안한다

제2회 아동정책 토론회 개최... 35명 참여단 7개월간 아동 권리 모니터링 활동 전개

익산시가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이 직접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발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시는 26일 통합전주교육관에서 '익산시 아동들의 권리를 높여요'라는 주제로 제2회 아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최종오 시의회 의장, 아동의회,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아동복지기관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아동 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한 아동참여단 22명과 대학생

퍼실리테이터 13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모니터링단은 아동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지역의 아동정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안 논의를 전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놀이권 △안전과 보호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등 4개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다. 시는 사업을 검토 후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이다.

유혜영 세이브칠드런 서부지역본부

장은 "아동정책 토론회를 통해 지역 아동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미 아동복지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아동이 정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아동이 제안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아동에 의한 아동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참여의 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 시 공노조, 공직가치향상 위한 단체협약 체결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철, 이하 공공노조)이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2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공공노조가 지난 3월부터 9월초까지 분청을 비롯한 읍면동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9월 13일 140건에 대한 단체

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와 공공노조는 부서별 검토와 노사간 사전협의, 실무교섭위원회를 거쳐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장기근속공무원 휴가, △시청광장 휴게실 설치, 식당 운영 및 사무실 환경 개선, △인원

관련한 조례 제정, △부담 민원 조합원 보호 등 향후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후생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서에는 공직에 입문한 6~10년 사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행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장기재직 휴가를 6년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로 확대한 점과, 폭언·폭행 등 부당한 민원예방을 위해 바다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송철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공직사회의 이탈로 화두가 되는 MZ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는 세대가 아닌 조합원 개인차까지도 세심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공직의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광훈 기자

“시민중심의 안전복지 실현”

군산시, 영조물배상 공제 시민안전복지 실현

군산시는 26일 주요 도로 및 공원 등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서비스로 시민 안전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다.

보험 수혜대상은 영조물배상에 가입돼 있는 시 시설물로 피해를 입은 자이며, 해당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험가입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 후 전문 손해보

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올해 영조물가입 대상 시설물은 2,646건으로 전년도 1,843건에 비해 44%를 추가 등록했으며, 특히 사고가 많은 도로분야를 대폭 증가시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을 실시

지역 소식통

익산시 · 북중, 지역 자원 활용 도시재생 추진

익산시와 이리북중학교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리북중과 협력해 도교육청이 공고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공모한 결과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선정된 사업 주제는 '꼬부기 자연애(愛)-익산애(愛)-학교애(愛) 도시재생의 입김을 불어넣다'(꼬부기 : 이리북중 교표(校標) 상징물인 거북이의 애칭)로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도시재생을 위한 생태환경·내고장 바로 알기·리스쿨 활동 등으로 추진된다.

앞서 센터는 관·학 협력체계 구축으로 도시재생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센터의 제안과 이리북중의 협력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선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것은 물론 더 넓은 범위의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전국 규모 체육대회 잇따라... 경제 활력

익산지역에 전국 규모 체육대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이날 말까지 제19회 익산 양명자배 전국오픈탁구대회와 제5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기념 족구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익산시 탁구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제19회 익산양명자배 전국오픈탁구대회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된다.

1,200여명의 선수단과 임원들이 참석하며 첫날에는 여자·남자7부, 남자6부, 남자4~5부의 개인전과 단체전이 개최된다. 둘째 날은 혼성 에이스부~3부, 여자부의 개인전과 단체전이 진행된다. 단체전은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당일 대진 추첨하며 개인전은 3명 조별 예선 리그 후 1, 2위가 본선

에 진출하여 토너먼트 형식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 제5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기념 동호인 초청 족구대회가 문화체육센터체육장에서 진행된다.

500여명의 선수단과 임원들이 참석하여 우승을 향한 명승부를 펼친다. 경기는 당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하며 예선 리그전 후 각 조의 1, 2위가 본선에 진출하여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탁구와 족구 동호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임원진들이 대거 익산을 방문하면서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직원간 멘토링 '슬기로운 직장생활' 추진

군산시는 26일 신규직원의 직장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제도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조직 내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90년대~00년대생들의 대거 유입으로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 간의 세대 간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멘토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입사 10년 차 전·후의 선배 공무원과 신규입용 직원 간 1:2 매칭을 통해, 선배는 후배에게 기본적인 실무와 직장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전통 방식의 멘토링 뿐만 아니라,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MZ세대의 트렌드와 관심사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업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리버스 멘토링 관계 역시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이다.

/군산=김광훈기자

군산시 서수면, 착한가게 1호점 탄생

군산시 서수면은 지난 25일 서수면 착한가게 1호점으로 가입한 금송한우 직매장(대표 채은숙)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란 월 매출액의 일정액(3만 원 이상)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적으로 나눔하는 가게로 착한가게 현판을 제공받으며 기부 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독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서수면 착한가게 1호점의 주인공이 된 채은숙 대표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받은 관심과 사랑을 착한가게 가입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차상규 서수면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게 1호점으로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해 준 채은숙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이 전파되어 지역 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착한가게에 가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광훈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